배려와 나눔, 우정으로 화합되다

인천신정중, 신정인 어울마당 열어

이처시정중하고(교장 이미영)는 9 월 9일 제6회 '신정인 어울마당'을 열었다. 교정과 교실에서는 전시마 당과 체험마당이, 그리고 청운관(공 당)에서는 공연 마당이 다채롭게 펄 쳐졌다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신정인들의 잡재된 재능과 창의력이 한껏 발휘됐고, 감취진 끼와 재능이 배려와 나 눔, 우정으로 화합된 아름다운 모습 이 빛을 발하는 어울마당이었다.

학생회의 자율적인 주도 아래 공연 마당이 준비됐고, 전시마당에서는 한 해 동안 자신의 노력의 동아리 확 동 결과물이 전시됐으며, 체험마당 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마려해 학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

• 특히 올해는 학생회가 주도해 전교 생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공연마당을 1부와 2부로 나

눠 지행했는데, 사묵녹이부의 '무 굿'은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47명의 신정 오케스트라의 '모짜르 트 교향곡'연주는 전문가를 뺨치는 공연이었다.

방송부가 준비한 축하 영상과 패러 디 영상, 이벤트 영상은 역시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팝송대회 수상자들의 완성도 높은 노래 실력은 학생들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였다. 또한, 1~3학년 학생회가 만든 댄스

메득리는 공여자옥 득썬이게 한 정도 의 홍과 큰 웃음을 학생들에게 선사

학생회장인 3학년 김민지 양은 학교의 마지막 축제인데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난 몇 주 동안 늦 게까지 공연 리해설을 하면서 친구들 과 정말 많이 땀 흘렸고, 본 공연 두 대의 지행자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리



며 소감을 말했고, 김여서 학생의 어 "오늘 하루 제가 덩달아 정밀 머니는 신났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가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한 과정이 느 껴지고 우리 신정인 모두 하나 되는 진정한 어울마당이었습니다"라며 참 여 소간은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신정인

어울마당'은 참다운 학교 축제의 한 본보기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학 생득에게 '축제의 주이공은 나' 라는 자존감을 심어주고 함께 만드는 즐거 움을 느끼는 소중하 성장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전국청소년 과학탐구대회 탐구토

로대히는 지나 2월 주제 아내를 시작

으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예선과

인천광역시대회를 거쳐 전국대회까

지 이번 대회의 긴 여정을 마쳤다.

을 밝혔다.

안용섭 기자 avs@

안용섭기자 avs@

우리지역 연고구단의 팬이 되다

인천여자중학교는 인천유나이티드를 사랑합병

상인천여자중학교 우수 스포츠클럽 학생 일동

상인천여중,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 경기 관전

사이처여자중하고(교장 기이순) 는 9월 10일 인천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29라운드 경기 인천유나 이티드와 FC서울과의 프로축구 경기 를 관전했다.

1학기와 방학 동안 학교스포츠클 럽 대회를 준비했던 학생을 비롯해 스포츠동아리 학생, 학교 학생회 등 교사, 학생 100여 명은 인천을 연고 로 하는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을 응 원했다. 이날 특별히 인천 프로축구 단의 배려로 경기 시작 전 학생들과 서수득의 만난이 하이파이브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이 직접 운동장에 내려 가 선수들과 만나고 기념 사지을 찍 는 등 특별한 경험을 체험했다.

프로스포츠 스타 선수들을 가까이 에서 본 학생들은 기쁨과 흥분을 감 추지 못하며 즐거워했다. 이모 학생 (3학년)은 "오늘의 추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인천유 나이티드 축구단의 열렬한 팬이 돼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라는 관전 소 감을 밝혔다.

또하. 이낙 한생득의 응워에 회인 어서인지 정규리그 2위 팀인 FC서울 을 1:0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장에서 같 이 참여한 교사들도 여학생들이 이렇 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함께 기뻐했다. 이번 행사로 자라나는 항 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 하고, 지역사회 프로스포츠 구단과 의 유대관계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된 하루였다.

이용석 기자 ays@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인천진산초, 전국청소년 과학탐구대회 탐구토론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경상북도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는 지난 9월 4일 제34회 전국청소년 과학탐구대회 탐구토론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진산초등학교 (교장 김혜숙) 6학년 문혜준, 양수 민, 조현준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 다. 전국 초·중·고 화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과학적 탐구력을 겨루 고, 상호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

년의 과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탐구능력을 함양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 도에서3인 1팀으로 구 성된 18개 팀의 학생들이 '곤충 식 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회는 발표팀의 발표에 이은 반톤 팀의 반론, 그리고 마지막 평론팀의 평론을 통해 이뤄지며 모든 팀이 각 각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수행하게 된

대하에 찬가했던 양수미 항생은 '열심히 탐구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

으로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한 치 의 양보도 없는 멋진 토론활동을 했 어요. 최종 본선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흥미 있는 과학 주 제를 탁구하고 토론을 준비했던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김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신선초, 학교전담 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처시서초등학교(교장 김상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친구사랑 주간(9.5~9.9)에 인천중부경찰서에 서 주최하는 학교폭력(범죄)예방 교 심음 신청해 9월 7일에 전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 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노동혁 경찰관

은 아침조한 시간을 이용해 학교전단 경찰관 소개와 학교폭력예방에 대해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에 걸쳐 강의를 진행했다. 학교폭력의 사례,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의 신고요령이나 대처방 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피해 학

후화를 했으며, 이후 시청각실에서

생의 대처유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과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범죄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번전 처리 적차에 대해 항생득이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범죄 예방을 위하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에 대하 교육도 이뤄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이 스 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됐다.

학교환경 청결지킴이

사회적기업(예비) 새한에이치엠 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 -, 학교청소 인력, 경비인력 파견 및 관리
- -. 건물 내,의 청소, 바닥청소 및 코팅, 유리창 청소, 학교 대청소
- -, 수목소독, 모래소독, 교실(특별실)소독, 급식실소독
- -. 저수조 청소 및 소독, 배수로 청소, 폐기물 처리
- 냉.난방기 청소. 선풍기 청소
- -, 군식식 후드(당트) 및 바닥 청소
- -. 각종 청소용품 및 장비 납품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7번길 14, 102호 Tel. 032-426-9399, Fax. 032-426-9397 서북지사: Tel. 032-512-3782, Fax. 032-724-0782

고교생들이 함께 한 인문학 향연

인천시교육청, 제4회 행복여행 윤리·철학 한마당 개최

이처과여시교유처 고등하고 도터. 윤리 교과연구회(회장 김갑회, 고 교사)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의 후 원을 받아'제4회 행복여행 인천·윤 리철학 하마당'을 9월 10일, 부광고 등학교(교장 문형봉)에서 개최하였

・ 이번 제4회 행복여행 인천 윤리·철 학 하마당은 이처 관내 고등학교 36 개교(토론 57팀, 골든벨 95명)가 참 가하였다. 토론 주제는 '이민자 수용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이고, 골든벨은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최

지기 저)'를 서전도서로 참여 유리천 학에 관련된 인문학적 지식 전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문형봉 교장(부광고)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4회를 맞은 이처 유리. 철학 한마당이 본교에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소통마당(토론), 지혜마당(골든벨)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름 마음껏 펼치는 집단지성의 축제가 되어 서로 어우러져 소통하며 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유익한 시 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마당(토론)에 참여한 하태현

(부광고 2학년) 군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이민자 수용정책에 대해 다양 한 관점에서 공부하고 뛰어난 학생들 과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

교과연구히 한자(부광고 교사 김 갑회)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대 회 출전을 위해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대회를 기획하고 추지해준 우영지들 덕분에 유리・첨 학한마당이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 었다"며, "앞으로 인천광역시교육 청 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연구회 에서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상성 력이 펼쳐질 수 있는 다채롭고 행사를 계획해 나가도록 노력할